

세라믹학회, 창립 50주년 행사 aT센터 개최

전통 및 첨단 세라믹스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 세라믹스 관련 기관들의 총화적 행사인 세라믹학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가 11월 8-10일 aT센터에서 개최된다.

세라믹스(Ceramics)는 인위적으로 열을 가해 만든 비금속 무기재료로서 최근 입자 크기가 나노미터(10억분의 1m) 단위로까지 줄어들 정도로 더 정밀해지고 있고 시계·전자제품·자동차부터 우주왕복선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는 핵심 소재로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로 부상하고 있다.

한국세라믹학회가 주최하고 요업기술원, 한국세라믹총협회,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, 한국과학재단 등이 후원하는 행사 기념식에는 김용근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장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기업인, 세라믹분야 전문가 등 400여명이 참가한다.

행사는 <전통과 미래산업의 마이다스 손, 세라믹스>라는 표어를 걸고, 국제 학술대회와 전시회를 함께 열어 세라믹스 기술의 국내·외 동향 등을 논의하고, 우수 제품·기술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.

11월8일 정책포럼, 전국 세라믹스관련 전공학생 포스터 발표 경진대회를 시작으로 11월9일에는 기념식, 국제 여성 세라미스트 워크숍 및 50주년 기념의 밤 행사가 개최된다.

또 국내·외 세라믹스관련 저명인사가 초청된 국제학술대회가 예정돼 있고 세라믹의 다양한 제품과 응용분야 전시와 함께 일반인과 중·고등학생의 세라믹스 이해증진을 위한 체험관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.

한편, 한국세라믹학회는 1957년 세라믹스 관련 대학, 연구소, 산업체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, 세라믹스 관련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과 학문 보급을 목적으로 설립됐다. <김 은 기자>

<화학저널 2007/11/09>